

부처님오신날 불만한 프로그램

방송사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불교TV	(19일) 12:00	특집다큐 '역사스님'	불교 석가탄신일의 작품세계 조명
	(19일) 06:40	영화 '비단잠자리'	군중법사의 실력으로 고종황과 신명의 대립이 해결된다는 내용
불교방송	10:00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08:00	특별 대담 '스님에게 묻는다'	조계종 원로회장 도원스님이 부처님 오신날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08:05	'이름다운 신묘, 아름다운 신묘, 아름다운 신묘'	니르바나 신묘의 의미를 소개
	10:00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불교 법요식 신행중계
KBS-TV	10:00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11:00	특집다큐 '길 위의 불자들'	인도의 수자티아르의 지방봉사자들의 활동모습 소개
MBC-TV	10:00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불교법요식 신행중계
	(21일) 11:00	특집다큐 '역사스님'	불교 석가탄신일의 작품세계 조명
EBS-TV	13:00	특집 다큐 '발우공양'	발우공양의 의의와 유래, 의식 순서를 소개해 준다.
	22:00	특집 영화 '적기모니'	적기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영화화 한다.

# 다큐 '길 위의 불자들' 볼만

19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고계 방송을 비롯한 각 방송사들이 다큐멘터리, 영화,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방송한다. 이중 KBS-1TV의 '길 위의 불자들'과 EBS-TV의 '발우공양', 불교TV의 특선 영화 '비단잠자리' 등은 눈여겨 볼만한 프로그램들이다.

## 방송사들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양



▷불교TV의 특선일 특선 영화 '비단잠자리'에서 군중법사(최상훈 분)가 고탐상명(이훈 분)에게 신행담을 하고 있다.

19일(오전 11시~12시) 방영되는 특집 다큐멘터리 '길 위의 불자들'은 인도의 불가촉 천민집단 거주지 중게스와 리마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수자티아르카데미 봉사자들의 활동 모습을 조

원하고 있는 그들의 어려움과 보람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았다. 오승배 PD/URN 프로덕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며 봉사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통해 수행과 실천이 하나임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같은날 EBS-TV에서 방송되는 다큐멘터리 '발우공양' (오후 1시~오후 2시)은 발우공양의 유래와 의의, 의식 순서를 자세하게 소개해 준다. 경북 김천 직지사 말사인 비구니 도량 참담사에서 촬영한 이 프로그램은 특히 외경심이 일 정도로 엄숙한 비구니 스님들의 발우공양 모습에 자세한 해설과 자막까지 곁들여는 등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불교TV가 기획한 특선영화 '비단잠자리' (오전 8시40분~오전 10시)는 병영에서 고탐상명과 신명간의 반목과 대립을 군중법사의 충고와 설법으로 화해해 가는 과정을 영화화했다.

불교방송도 또한 조계종 원로회장의 의장 스님을 초청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듣는 특별대담 '스님에게 묻는다' (오전 8시~오전 9시)를 방송한다.

문화 담당= 김주일 기자 jim@buddhaha.com



## 김훈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최근의 문화 현상 중에서 주목받는 코드 중의 하나는 '환타지(환상)'라는 말이다. 얼마 전 소설과 영화로 만들어져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해리 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작품이 전형적인 환타지 소설이다. '환타지'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세계가 되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컴퓨터 게임은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인터넷의 사이버 세계도 넓은 의미의 환타지이다. 과거에는 감각되는 물질만이 현실세계를 구성하였지만, 지금은 화면이 나타나는 저 방대한 월드 와이드 웹(www)의 가상세계가 현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환상이 실제 못지 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불교의 오랜 통찰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다시 한 번 인간과 사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전형적인 환타지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서유기>의 경우에서도 현실과 환상은 뒤바뀐다.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삼장법사는 현실적인 인물이고 손오공 등은 환상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삼장법사는 명멸 같은 캐릭터의 비현실적 인물로 그려지는 반면, 가상 인물인 손오공과 저팔계 등은 저마다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로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말하자면 환상이 실제

## 서산대사의 '세가지 꿈'

주인은 손님에게 꿈이야기를...  
손님은 주인에게 꿈이야기를...  
꿈이야기 하는 그 두 사람도  
역시 꿈속의 사람일지라

보다 훨씬 더 리얼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은 사실은 삼장법사의 분신들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현실(삼장법사)과 환상(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교차시킴으로써 실제 삼장법사의 입체적인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인생의 진리는 사진보다 그림으로 포착하기가 더 용이한 법이다. 사진으로 마음을 찍기는 어렵지만, 그림으로 나타내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자아를 표현하기엔 사진(현실)보다 그림(환상)이 더 유용한 것이다. 진정한 자아는 현실 속의 '나'와 이상으로서의 '나'를 합쳐야 비로소 그 본질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실존주의에서는 '나는 나 아닌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필요하게 표현한 이는 묘향산에 오래 살아서 서산대사라고 불리는 청허휴정(1150~1604) 스님이다. 그는 득도한 후 금강산에 있을 때, '세 가지 꿈 이야기(三夢記)'를 지었다.

주인은 꿈 이야기를 손님에게 말하고 主人夢說客  
손님은 꿈 이야기를 주인에게 말하네 客夢說主人  
지금 꿈 이야기를 하는 그 두 사람도 夢說二夢客  
역시 꿈속의 사람일지라 亦是夢中人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첫 걸음이라고 한다. 환타지 영화와 인터넷의 범람으로 현실과 환상 사이의 경계가 의심받는다. 요즘, 혹시 내가 믿고 있는 자아라는 것 역시 하나의 환타지가 아닐까 의심해 보게 된다.

■문학평론가

## 불교문헌 등 인문학 전산화 작업 '전문·표준·세계화' 원칙 지켜야

허인섭 교수 주장



4월 열린 한국종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EBTI(세계전자불전협의회)와 ECAI(세계전자문화지도협의회)의 발전을 통해 본 불교문헌 및 문화 관련 DB 구축의 과제 고찰'을 발표한 허인섭(사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한국학과 겸임교수는 "인문학 전산화 작업은 '전문화, 표준화, 세계화'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무시될 경우 구축된 DB는 전면적으로 개·보수하거나 심지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허 교수는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 진

행하고 있는 고려대장경 전산화와 불교문헌지도 DB 구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가 겪었던 시행 착오의 극복 과정을 사례로 발표한 허 교수는 특히 고려대장경 전산화 작업 초기, 영인본 판본 연구 부족과 기준이 되는 판본의 설정 부재로 인한 시행 착오를 예로 들면서 "1차 단순 자료 입력 후의 소위 콘텐트 분석에는 거의 모든 작업이 세부 전공 분야별 불교학자들의 일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 구축된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 검색 범주의 표준화 역시 절실한 문제다. 허 교수는 "디지털 문화정보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 모델 개발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자료를 구축한 후 세부 분야별 전문가 또는 그룹이 표준화된 범주 체계에 따라 자료를 축적해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mmy@buddhaha.com

## 금니사경 작품 등 한눈에

21일까지 백상기념관서 '전통사경전'



▷김경호씨의 김지금니 아래10대 발원문

경전을 베껴 쓰는 수행법인 '사경(寫經)'은 부처님 말씀을 제자들이 외워 패다라수위에 기록한 패엽경(貝葉經)으로부터 시작됐다. 인쇄술이 발달한

지금도 '사경'은 삼매나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기 위한 수행방법으로 불자들에게 널리 퍼져있다. 그래서 손끝에서 나오는 기교만으로는 제대로된 사경작품이 나올 수 없다.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안국동 백상기념관 제2전시실에서 열리는 사경연구회 김경호씨의 '전통사경전'에 가면 불교의 전성기인 고려시대의 사경기법 등 우리나라 전통 사경 작품의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

## 화두로 보는 禪화전

19일까지 강화 전등사에서

천진한 모습의 동자승을 화폭에 담은 김수현 씨의 '화두로 보는 禪화전'이 16일부터 19일까지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린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해온 김씨의 이번 전시회는 공안을 이고 가는 동자승의 모습을 그린



▷김수현의 '오직이 순간에'

'모든 부처님께 공양을', '차나 한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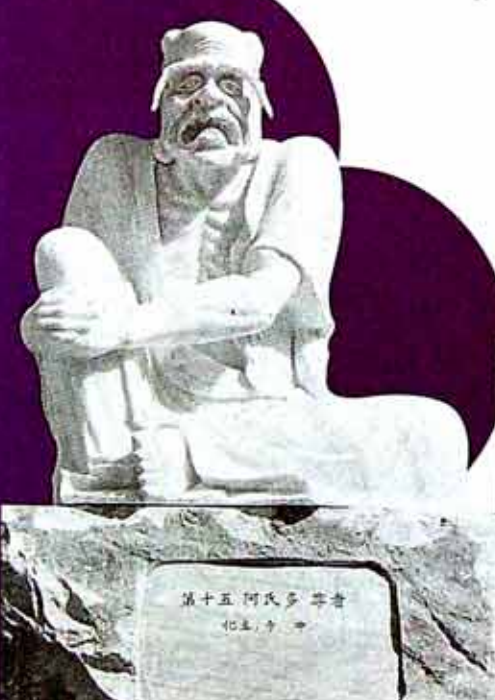
누세', '무심', '염불삼매' 등 40여점이 전시된다. 성악가 정을 스님의 음반 자켓 작업을 하기도 했던 김씨는 "인간 본래의 불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동자승이 가장 효과적이라 98년부터 동자승을 주로 그려왔다"며 "뉴욕에 있는 백림사에서 3천대 기도를 하다가 붓을 들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미국의 선센터와 뉴욕 소호갤러리에서도 개인전을 갖고 있다. 032937-0125

조각작품으로 안불 안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부처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세련빌딩 401호 TEL: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불총림방장 서용 큰 스님 / 추천서